

청소년 미혼모들의 디딤돌이 되다



인천시에 위치한 여성인권 동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미혼모의 출산과 육아 지원, 교육,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등 청소년 미혼모 지원에 힘쓰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청소년 미혼모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와 학교에서 외면 받을 것이 뻔해 청소년들은 임신 사실을 주변에 쉽게 알리지 못한다. 청소년 미혼모가 집이나 외부 숙박시설에서 출산하고 영아 유기 등 위태로운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성인권 동감(이하 동감)은 그동안 정부 지원 없이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비공개 출산을 원하는 미혼모들을 지원해왔다. 2021년에는 아산사회복지재단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미혼모 1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미혼모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엄마’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성매매 피해 여성을 돕는 NGO 단체에서 활동해 온 최미라 동감 대표는 청소년 미혼모들이 성매매 피해 여성들보다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됐다.

“정부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이 있지만, 미혼모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 서류나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 미혼모라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려고 해도 대기해야 하고요. 조건 없는 ‘미혼모 초기 긴급지원’ 시스템을 마련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동감은 미혼모 중에서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미혼모에 주목해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산부인과와 긴밀한 연대를 통해



동감은 월 1회 기저귀와 분유, 물티슈, 옷 등 아기에게 필요한 생필품 전반을 지원한다.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미혼모를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안전하고 독립적인 공간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긴급쉼터인 세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와 멘토들의 도움을 받으며 청소년 미혼모들의 위축된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고 엄마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도 싹트기 시작한다. 박미선 사무국장은 세어하우스 생활은 청소년 미혼모에게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처음에는 출산은 해도 아이는 키우지 않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입양 보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친구들도 자기 아이를 얼마나 정성껏 키우는지 모릅니다. 가족이 없었던 친구들은 아이를 유일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애뜻해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미혼모들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엄마’가 된다. 누군가 곁에서 자신을 지지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청소년 미혼모들은 자립을 결심할 힘을 얻는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동감은 청소년 미혼모가 자녀 양육을 결정하면 기저귀와

분유, 물티슈, 옷 등 아기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고 출산 후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임신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검정고시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국가지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2022년부터는 청소년 시기의 다양한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폭넓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며, 직업훈련과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만큼은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도 운영한다.

동감은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재가(在家) 청소년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연구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지원 체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사업내용과 성과를 모델링하고 있다. 앞으로는 청소년 미혼모와 국가지원, 시설 등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역할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동감은 청소년 미혼모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당당하게 살아갈 세상을 그리며 때로는 긴급 구조사로, 때로는 든든한 조력자로 오늘도 그들의 곁을 지키고 있다. 

글 **곽한나** 작가